



2026. 7. 29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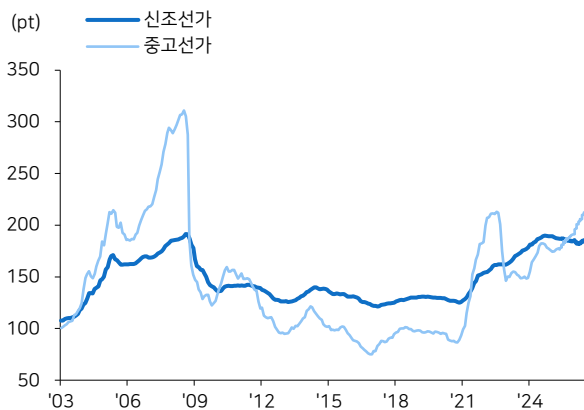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4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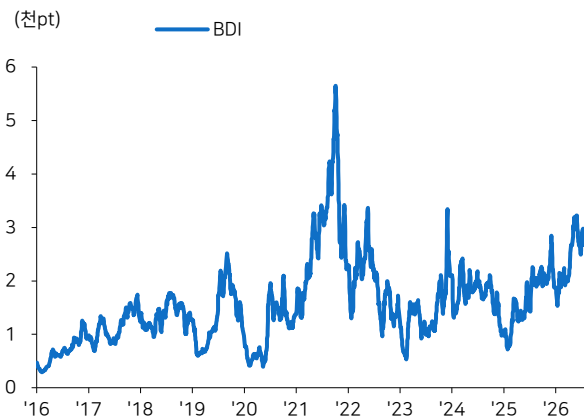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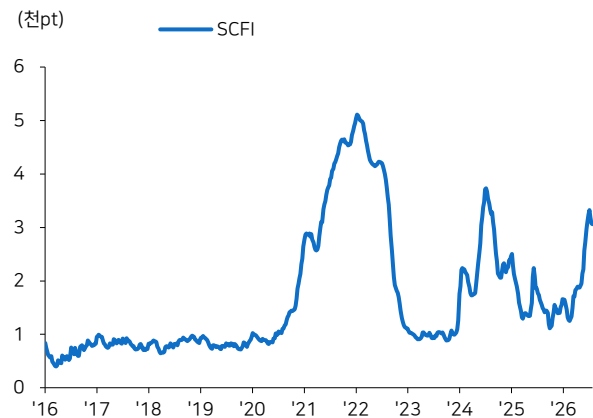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96.0p (-4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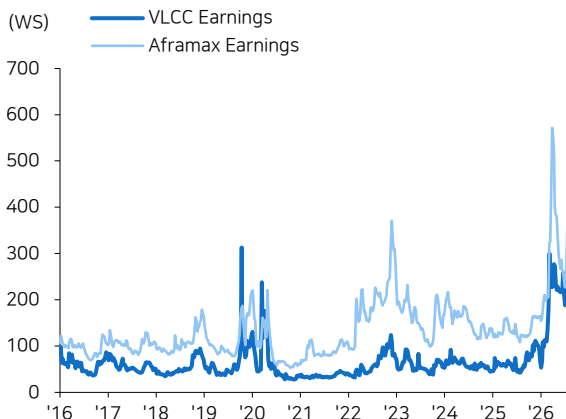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063.0(-17.4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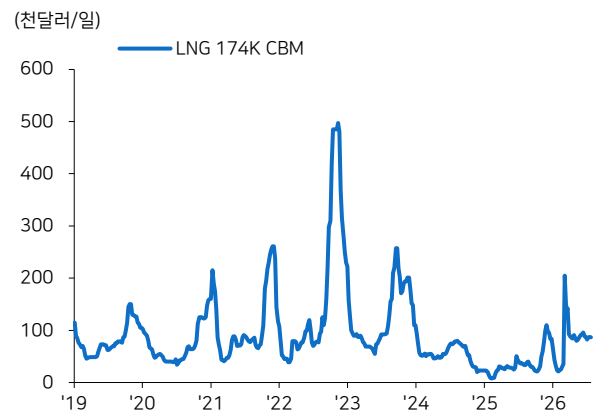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28.0WS (+0.1p WoW)



LNG Spot 운임

86.5천달러 (-0.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加 설욕 나선 한화오션...칠레·사우디·그리스·태국 '정조준' (헤럴드경제)

<https://zrr.kr/ToaWSy>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불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 개발한 잠수함 기술력을 앞세워 태국,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등 아프리카·유럽·아시아·남미를 겨냥한 본격적인 특수선 수주 설욕전에 나선다고 보도됨.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칠레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에 정인섭 사장 등 고위 임원들이 동행하여 칠레 해군 현대화 및 잠수함·호위함 수주를 위한 현지 밀착형 영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알려짐. 한편 한화오션은 생산 안정화와 LNG 운반선 중심의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하반기 수주 실적 가속화와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 나토 맞설 전략 배일 벗어...'모로코 조선소+페루 모델' 활용 (더구루)

<https://zrr.kr/khKowx>

HD현대중공업이 모로코 카사블랑카 조선소 운영권 확보를 추진하며, 원해경비함(OPV) 건조를 거쳐 잠수함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으로 확장하는 단계별 해양 방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됨. 모로코 국립항만청(ANP)이 발주한 카사블랑카 조선소 입찰에 튀르키예·모로코 기업과 3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중이며, 페루 모델을 적용하여 지식재산권 이전 및 나토 우방국 규격에 맞춘 1,500톤급 잠수함(HDS-1500) 거점 구축을 타진하고 있다고 알려짐. ANP가 오는 8월 초 최종 사업자 발표를 앞둔 가운데, 조선소 운영권을 수주할 경우 서방 및 나토 중심의 잠수함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교두보가 될 전망으로 전해짐.

Venture Global taps Baker Hughes for Louisiana LNG expansion project (Upstream)

<https://zrr.kr/jiGVI>

미국의 에너지 기술 및 서비스 기업인 Baker Hughes가 Venture Global LNG의 루이지애나주 'Calcasieu Pass 2(CP2)' LNG 액화 확장 프로젝트에 액화 기술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양사 간 체결된 마스터 장비 공급 협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2개 모듈로 구성된 6개의 액화 블록 공급을 포함하고 있고 올해 2분기에 수주가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알려짐. 완공 시 연간 2,900만 톤 이상의 수출 능력을 갖추게 될 CP2 LNG 시설은 물론, 기존 Calcasieu Pass 및 Plaquemines LNG 프로젝트에도 핵심 장비를 공급해 온 Baker Hughes는 이번 협력을 통해 Venture Global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이 전해짐.

한화 美 필리조전소 '연내 2배↑' 프로젝트 청사진 공개...인프라 확장 목표 구체화 (더구루)

<https://zrr.kr/7nyWMK>

한화가 미국 방산·조선 거점인 필라델피아 필리조전소의 사업 기반을 연내 최대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미국 정부 발주 함정 수주전에 속도를 낸다고 보도됨.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는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장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서 필리조전소 인수 후 인력과 투자를 대폭 늘린 데 이어, 올해 사업 기반을 최대 2배까지 확장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한화는 연간 건조 능력을 대폭 늘리고 블록 생산기지를 조성해 상선뿐만 아니라 함정 건조 체계를 갖추 계획이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차세대 미사일방어체계 '골든돔'을 지원할 미사일 계측선 건조 사업 등을 수주하며 미국 안보 핵심 파트너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전해짐.

Asyad brings in investors to part-own \$500m LNG carrier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zrr.kr/Ev9yU7>

Asyad Shipping이 국내 펀드 두 곳을 파트너로 맞아 올해 HD현대삼호에서 인도받은 17만 4000cbm급 신조 LNG 운반선 'Muscat'과 'Musandam'의 지분 20%(각각 10%)를 공동 소유하는 새로운 제휴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구체적인 재정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Asyad가 상당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추정되며, Ibrahim Al Nadhairi CEO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십이 오만의 국가 해운 및 물류 산업을 강화하고 상류 가스 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으로 알려짐.

QatarEnergy offers fresh LNG carriers out for short-term charter as Gulf crisis rolls on (TradeWinds)

<https://zrr.kr/VrQPw6>

걸프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와 생산 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QatarEnergy가 가용 LNG 운반선들을 단기 용선 시장에 잇따라 내놓고 있음이 보도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험과 카타르의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 연장으로 인해 유럽의 가스 재고가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겨울철 에너지 안보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알려짐. 카타르 생산시설의 완전 정상화가 2027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LNG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아시아·유럽 간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될 전망으로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